

월요 CEO의 희망편지



걱정과 근심이 있음은 생존이다

여름휴가철입니다. 다들 휴가 가는데 회사 일에 밀려 휴가를 못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무더운 날씨엔 주말을 틈타 회사 일을 잠시 잊어버리고, 약간의 리프레쉬를 하시길 권합니다. 비록 직장생활에서의 휴가가 쉬는 게 맘 놓고 푹 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말이죠.

휴가를 보내면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어의 말 중 호지자 불여락지자(好之者 不如樂之者)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직장생활에서 굳이 피할 수 없다면 즐거운 맘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항상 갈망하라 (Stay hungry!)’고 외친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선택보다는 힘든 선택이 오히려 인생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험에서 나온 충고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자도 위대한 조직은 역경 속에서 꽃을 피웠다고 정의하면서, 지금의 걱정과 근심이 오히려 나를 긴장시켜 조직을 살리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며 ‘긴장하고 살자, 정신 차리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아무리 힘든 직장생활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집단지성으로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직장생활은 안정이 우선이고 인생은 안락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역경과 근심이 오히려 긍정적인 생존의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우환(憂患)이 곧 생존(生存)임을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참고] 공자왈,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詩] **동그란 길로 가다 -박노해 지음-**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지옥의 고통도 짧다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은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나가는 것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엄을 잃지 마라